

# 신앙의 마지막 안식처

황사평 천주교 묘역은 순례자들이 자주 찾는 천주교 성지이다. 제주 최초의 신자 김기량의 순교비와 신앙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이 묻혀있는 이곳은 오랫동안 천주교인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왔다.



**황새왓길** | 제주시 이도2동 21-1 ~ 제주시 화북2동 5344-1(약 0.5km)

**황사평길** | 제주시 화북2동 3162-1 ~ 제주시 화북1동 4296(약 1.7km)

**부록길** | 제주시 화북2동 2767-3 ~ 제주시 화북2동 3274-3(약 0.8km)

**거로길** | 제주시 화북2동 4955-4 ~ 제주시 화북2동 3462(약 0.8km)

**영평길** | 제주시 영평동 311 ~ 제주시 월평동 1355-3(약 2.9km)

**기와1길** | 제주시 영평동 2647-1 ~ 제주시 영평동 2600-1(약 0.8km)

**영강길** | 제주시 화북2동 2951-1 ~ 제주시 용강동 1560-1(약 2.8km)

**월평1길** | 제주시 월평동 1154-1 ~ 제주시 월평동 1084-1(약 0.2km)

## 황새왓길 / 황사평길 | 황사평 천주교 묘역



황사평 천주교 묘역

황사평은 제주시 화북동의 한 마을이다. 예전에는 황새왓으로 불렸는데 황새가 나는 밭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황사평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연북로와 남광로를 잇는 길에 옛 지명을 따서 **황새왓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는 길은 현재 지명을 반영해서 **황사평길**이라 했다.

황사평은 천주교인들의 묘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묘역 안에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무덤들을 지키고 있다. 이곳에 천주교인들의 묘역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1901년 일어났던 이재수의 난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천주교에 대해 오랜 박해 끝에 합법적인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거기에 더해 외국인 신부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자 천주교의 위세를 등에 업기 위해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무늬만 신자행세를 하면서 나쁜 짓을 일삼았다. 더구나 이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봉세관과 결탁해서 사람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 결국 이런 불만이 계속 쌓이다 폭발한 것이 이재수의 난이다. 이재수를 장두로 앞세운 사람들은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며 제주성으로 진격했다. 이 와중에 수백 명에 이르는 천주교인들이 피살되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선량한 교인들도 다수 희생되었다. 이후 난이 수습된 뒤에 천주교인들의 시신 중에 연고가 없는 시신들을 황사평에 안장하면서 천주교 묘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제주출신 최초의 신자라고 알려진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비도 있다. 김기량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던 19세기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중국에 표류했는데, 그 곳에서 선교사를 만나 천주교에 몸담게 된다. 이후 제주에 돌아와 선교활동을 하면서 천주교의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무역을 하기 위해 제주 밖으로 나갔다가 불심검문에 성서 등이 발견되면서 관아에 잡혀가 결국 장렬히 생을 마쳤다. 천주교에서는 존경할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복자라고 인정하여 추앙을 하는데 김기량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복자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열정을 기리고 있다.

## 부록길/거로길 | 부록마을과 거로마을

부록길과 거로길은 각각 부록마을과 거로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이 두 마을은 황사평과 더불어 화북2동을 구성하는 마을이다. 황사평의 동쪽에 있는 부록마을의 샘 주변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생겨났다고 한다. 부록마을은 예전에 부루기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부처를 모신 집을 뜻하는 불우(佛宇)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부로라고 하다가 넉넉하게 복된 마을이라는 뜻으로 부록(富祿)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부록마을에는 예전에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거로 지역에도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다. 제주성과 화북포구 또는 정의현을 왕래하려면 이 마을을 지나가야 했다. 그래서 큰 길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거로(巨路)라 하다가 이후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학덕이 높은 어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거로(巨老)마을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450여 년 전쯤 왜적들의 침입으로 마을이 모두 불타버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고으니무루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왜적들이 마을의 식량을 약탈하고 방화를 하는 바람에 마을이 초토화되기도 했다. 그 후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마을을 이루었지만, 4·3사건 때 마을이 사라지는 아픔을 한 번 더 겪기도 했다. 거로마을은 광해군의 라이벌인 인목왕후의 어머니 노씨부인이 제주에 유배를 와서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노씨부인은 이곳에 머물면서 막걸리와 비슷한 모주를 만들어 팔았는데, 사람들은 이 술을 왕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이라고 해서 대비모주라고 불렀다고 한다.



거로마을

## 영평길/기와1길 | 영평마을

영평길은 황사평의 남쪽에 있는 마을인 영평동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영평동은 예전에는 알무드내 또는 가시나무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알무드내는 무드내라고 불리던 하천의 아래쪽에 있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이름인 가시나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온다. 마을에 있는 봉천수인 울리수 주위에 가시나무 숲이 울창해서라는 설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가시나무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였다고도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는 가시를 ‘수풀’에 물을 ‘둔덕’으로 해석해 ‘수풀 앞 둔덕’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영평초등학교 서북쪽에는 와왓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예전에 기와를 구웠던 발이 있었던 곳이다. 관덕정을 증축할 때 사용했던 기와를 이곳에서 구웠다고 전한다. 지금은 기와를 굽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지만 **기와1길**과 같은 도로명에 그 흔적이 전해 온다.

## 영강길 | 용강마을

황사평길에서 남쪽으로 뻗어나와 영평동과 용강동을 이어주는 길이 **영강길**이다. 예전에 웃무드내라 불렀던 용강에는 고씨 형제와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고씨 형제는 용강마을 서쪽의 형제못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들은 아주 큰 부자였는데 성격이 고약해서 횡포가 아주 심했다. 다른 사람이 키우던 말이 형제들의 말들 사이에 들어가면 말을 돌려주는 커녕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 일쑤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가 심하다고 해서 고역지 형제라고 불렀다. 이들은 자신들이 먹는 물도 따로 두었다. 그래서 종들은 다른 곳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했다. 고씨 형제는 나중에 대장간을 세우고 창과 칼을 만들어 무장까지 시도했다. 이 소식이 관아에 알려지자 관아에서는 역모를 꾀했다고 해서 이들을 잡아 처형했다. 그리고 고역지 형제가 살던 집터를 파서 연못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전한다.

## 월평1길 | 월평마을

영평마을 남쪽으로는 월평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월평1길**을 비롯해 월평이란 이름을 딴 길들이 마을 곳곳에 이어진다. 이 마을은 예전에 다라콧이라고 불렀다. 월평에는 제주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다라콧당이 있다. 다라콧당은 월평마을과 영평마을의 분향당이다. 제주중앙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분향당은 큰 팽나무가 있고,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 당은 ‘산신백관 산신대왕’과 ‘은기선생 늦기선생’ 부부신을 모신다. 아이들의 육아와 관련해서 ‘애기또’ 또는 ‘보제또’라는 신도 함께 모신다고 한다. 예전에는 아이가 부스럼이 나거나 나쁜 버릇이 있으면 이 당을 찾아 그릇을 깨고 오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제단에 깨진 그릇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다라콧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을과 가정의 무사안녕을 지켜주는 곳으로 남아있다.